

### ‘두쫘쿠 효과’ 광주·전남 헌혈 2.6배 ↑ … 카페들도 기부 행렬

## “광주에서 시작되는 선한 영향력에 함께해 주세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광주·전남에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두바이 쫘득 쿠키’(두쫘쿠)를 매개로 한 이웃 사랑이 펼쳐지고 있다. 혈액원이 최근 헌혈 단체용으로 두쫘쿠를 증정하는 이벤트에 헌혈자가 3배 가까이 증가하자 이 소식을 접한 지역 내 자영업자·기관 등이 두쫘쿠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29일 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류주혜(33)씨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혈액원의 ‘두쫘쿠 증정 이벤트’를 통해 헌혈 참여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류씨는 “내가 만들고 있는 두쫘쿠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이달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광주 카페 헌혈 캠페인: 두쫘쿠의 기적’ 참가 카페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캠페인은 2월 설 명절 전후 광주 내 헌혈의 집 5개 센터에 매일 300개씩, 총 1500개의 두쫘쿠를 기부하는 것이 목표다.

류씨의 캠페인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모집 이들 만이 이날까지 카페 10곳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류씨는 “헌혈과 기부를 잇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다. 광주 카페들도 마음을 모아 함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캠페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혈 10개의 광주 내 카페가 참여



지난 23일 광주에서 열린 두쫘쿠 증정 헌혈 이벤트.

사진=광주전남 혈액원 제공

의사를 전했다. 다만 주재료인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목표 물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광주에서 시작되는 작지만 확실한 선한 흐름에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전남 혈액원은 지난 23일 하루 동안 헌혈자에게 두쫘쿠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영향으로 이날 하루 평균 356명이던 헌혈자가 1002명으

로 2.6배 증가했다.

‘두쫘쿠’ 이벤트가 헌혈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번주에도 헌혈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덕분에 지난해 9월부터 광주와 전남에 ‘관심’ 단계였던 혈액보유량은 최근 ‘적정 재고’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순천 소재 카페 2곳과 개인 후원자는 직접 혈액원에 헌혈자 증정용 두쫘쿠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전달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KT

전남·전북본부에서 단체 헌혈을 진행하며 자체 예산으로 두쫘쿠를 구입, 특별 기념품으로 혈액원에 전달했다.

광주·전남 혈액원은 기증받은 두쫘쿠를 2월 중 헌혈자에게 증정하는 2차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박진성 광주·전남 혈액원장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혈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 보이스피싱 속은 노부부, 5000만원 이체 직전 경찰이 예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5000만 원을 빼앗길 뻔했던 노부부가 경찰의 예방 활동으로 피해를 면했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악성 앱 설치 피해자 리스트’를 통해 확인된 70대 여성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A씨는 지난 19일 신용카드로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이체할 자금을 모으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카드 오배송을 가장한 연락을 시작으로 카드사 콜센터로 위장한 조직원과 통화했고, 이후 연결된 급금원과 검찰을 사칭한 조직원의 ‘계좌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에 연이어서 속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해킹 등에 사용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A씨의 피해 정황은 경찰이 악성 앱 설치 피해자 리스트를 통해 파악된 피해자들을 면담하던 중 확인됐다.

면담 과정에서 A씨 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피해를 입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설득해 5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체하려던 시도를 막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접촉한 조직원들의 통화 내용과 기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매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각 지구대에 공유하며 교육과 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소개, 현금을 인출해 금고를 구매한 뒤 전달하게 하는 수법, 계좌의 명의가 도용돼 자산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 데 모아야 한다는 수법,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야 한다는 갑언이설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된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 가는 내용은 반드시 지인과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현근 기자

### 가스라이팅 강도살인에 시체유기, 50대 여성 무기징역 선고

## 돈 빼앗다 폭행 살해, 넉 달간 차량 속 시체유기

또래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빼앗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시체유기·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B(59),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5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전남 목포 도심 일대에서 승용차 안에 있던 50대 여성 D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돈을 요구하며 D씨를 폭행한 뒤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유기하고 무안군 한 마을 공터에 약 4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고,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B·C씨를 불러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

됐다. A씨는 미혼인 B·C씨에게도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겠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피해자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그 자녀나 형제에도 돈을 빌리게 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며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 과정에서 가해진 폭력 행위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실행했다. 폭행의 강도나 횡수 등을 고려하면 그 가담 정도가 A씨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라도 범행이 밝혀지는 데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권철 기자

### 산불 84%가 봄철에… 광주시, 산불방지대책 추진

## 2월1일~5월15일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불예방대책본부 가동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최근 10년간 광주지역 산불 중 84%가 봄철에 발생함에 따라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봄철 산불 대응능력을 높인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과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산불 지상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재난대응단 80명을 선발하고, 산불 진화차·등짐펌프·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

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신문·방송·대중교통·대전전광판 등 홍보채널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과 긴밀히 공조하고,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 등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해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현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광주광역시 광안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불법소각을 하고 있나요?  
농촌에서의 불법소각, 모든 것을 태우는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전면 금지하고,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을 중점 시행한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올해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안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